

“00금융 XXX팀장입니다” “고객님은 무담보 대출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슬깃한 ‘금전 대출 문자·전화’ 속지마세요

■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이렇게
수신번호 ‘070-’ 일단 의심
상담원 이름 반드시 확인을

“고객님은 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가조화로 신용등급 하락없이 신용등급 확인가능. 무담보 최대 5000만원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불법 문자메시지(SMS)나 전화를 하루에도 수차례 받는다. 특히 중요한 회의나 만남을 하고 있을 때 핸드폰을 통한 전화가 왔을 때는 적지 않게 당황한 예도 많을 것이다. 대부분은 귀찮아 하거나 무시하고 지나치지만 마친 사업자 금이나 생활비, 긴급자금 필요해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눈길이 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문자나 대출 상담 전화는 불법업체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비슷한 명칭을 내걸고 소비자를 유혹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우리 파이낸셜, 농협NH캐피탈 등 우리은행이나 농협 자회사처럼 현혹시키는 브랜드네임을 통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불법금융 대출광고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 요령을 만들어 발표했다.

▲일단 의심하고 보자

대출 상담을 해주겠다는 전화가 걸려 오면 무조건 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요령이다. 상담직원을 통해 간단한 상품 설명과 회사 소개를 듣고 난 뒤 전화를 끊고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한 지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보통 빨리 신청해야 한다는 식으로 다급하게 소비자를 재촉한다”며 “민약 정상적인 대출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전화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적힌 수신번호가 ‘070’으로 시작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일반 전화번호라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상담 센터를 갖추고 있어 ‘15XX’로 시작하는 전국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명칭이 아닌 ‘상담원’, ‘팀장’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에도 불법광고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심해 가두어서는 안된다.

불법 금융 대출 광고 대응요령 7가지

- 1 대출을 수락하기 전에 일단 전화를 끊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
- 2 상식선에서 생각하라. 상식밖의 대출이나 파격적인 조건은 의심
- 3 ‘070’으로 시작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일반 전화 번호일 경우 조심
- 4 상담직원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반드시 챙겨라.
- 5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조회하라
- 6 대출 금융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안내 사실을 재차 확인하라
- 7 부당수수료 요구 등 불법행위 발견시 금감원에 즉시 신고하라

〈자료:여신금융협회〉



특정 업체라고 해서 대출에 대해 별다른 묘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출 조건을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라도 대출해 준다는 식의 상식 밖의 이야기에 혹해서는 안된다. 설혹 대출이 되더라도 금리에 갇기 등 불법이 많아 급한 불은 끌수 있지만 금방 고리의 이자때문에 더욱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된다. 또 현행법상 고객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출을 알아봐 준다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달라고 해도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

▲제도권인지 확인 필수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해야 한다면 상담직원의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협회는 지난 2008년부터 공동으로 ‘대출상담사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여신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 접속해 ‘대출상담사 조회’ 항목을 클릭하고 이름과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 여부와 계약한 금융회사를 확인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조회해 보면 더욱 안전하다.

다소 번거롭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상담원이 밝힌 금융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을 안내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확인 전화를 소홀히 했다가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업체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홈페이지 주소와 전화번호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만약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불법 금융행위를 하는 업체를 발견했을 때는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하는게 더 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불법금융 대출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명의를 도용당한 금융사들도 이미지 실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형편이다”며 “피해예방 행동 요령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복잡한 금융상품 가입 전 공시정보 5단계 체크 필수

금융감독원은 28일 은행, 저축은행, 보험, 증권, 신용카드 등 214개 금융회사의 상품 공시방법이 다음달 1일부터 표준화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 공시정보의 활용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면 자신에게 알맞은 상품을 잘 고를 수 있고, 금융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을 확인하고 금융상품 회사별로 비교·선택한 뒤 납부액과 만기금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선택한 상품의 상세정보를 확인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금융상품 모집

인이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소개한 금융상품 공시정보의 5단계 활용법.

1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상품 확인 =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이나 업권별 금융협회의 ‘금융상품안내’,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조회’를 이용해 가입 목적에 따른 상품을 검색한다.

2 금융상품 회사별 비교·선택 =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이나 각 협회의 상품비교공시를 이용해 가입하려는 상품의 회사별 금리와 수수료 등을 비교·평가하는 게 좋다.

3 납부액과 만기금액 미리 계산 =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골랐다면 예상 이율과 기간, 보험료, 가입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포털 ‘금융계산기’, 각 보험사 ‘보험가입설계’, 금융투자협회 ‘펀드수익비율계산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4 선택 상품의 상세정보 확인 = 단순히 이율과 수수료만 따질 게 아니라 각 금융회사의 상품공시실에서 이율의 결정방법, 중도해지 조건, 보상 범위, 해당 금융회사의 안전성과 예금자보호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5 금융상품 모집인 자격여부 확인 = 무자격 모집인을 통해 상품에 가입하면 불안한 판매의 우려가 크다. 모집인의 자격 여부는 보험모집인, 대출상담사, 보험대리점, 금융투자전문인력, 신용카드 모집인을 금감원이 각 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연합뉴스

장터 소식

바겐세일 이벤트 풍성

광주신세계(대표 조창현)는 오는 17일까지 정기바겐세일을 실시한다.

세일 첫주인 3일까지는 신세계(포인트·시티·삼삼)카드도 당일 20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편안한 휴식! 폭신폭신 쿠션세트’를 증정하고 두번째 주말(4월 8일~10일)에는 ‘푹푹한 수납! 다용도 수납함’을, 세번째 세일 마지막주(15~17일)에는 ‘소품으로 만점! 포인트 정리함’을 8층 사은행사장에서 선착순 일 1000명에게 증정한다.

또한 광주신세계는 HAPPY SALE 스마트한 행운!! 스페셜 이벤트를 준비했다. ▲구매영수증의 행운번호를 신세계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즉석당첨을 통해 1만명에게 고급세제를 준다. 응모 기간은 18일까지이며 경품으로는 퍼실세탁제 1.35ℓ 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고객에게 배고하집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전단’ 확인 후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벤트 참여시 ‘맥북에어(11인치 64G)를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준다.

아웃도어 특별 기획전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고평후)은 17일까지 프리미엄 세일을 진행한다.

5일까지 8층 행사장에서 골프웨어, 아웃도어, 영계주얼 열레깅스 봄 인기상품 특별기획전을 펼친다. 골프 유명브랜드 특집으로 잭 니클라우스 T셔츠등이 할인 판매되고, 아웃도어 인기 상품 특집으로 컬럼비아 T셔츠 등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17일까지 해당 각층에서는 프리미엄 3대 테마상품전을 펼친다. 정상이 대비 할인율이 높은 HOT 이슈 상품전으로, 특보 상품, 롯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브랜드 스타일 상품전이 펼쳐진다. 1층 화장품 매장에서는 롯데 코스메틱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8층 사은행사장에서는 프리미엄 세일 주말마다 당일 30만원 이상 본인 구매영수증 제시 고객에게 사은선물을 비연속식으로 증정한다.

‘올바른 핫도그’ 출시

풀무원식품은 화학첨가제를 덜 넣고 국내산 재료를 많이 쓴 ‘올바른 핫도그’를 출시했다.

이 제품에 들어가는 소시지는 발색제(아질산나트륨)와 L-글루타민산나트륨, 합성보존·착향·착색료, 산화방지제(에리쓰르빈산나트륨) 등 6가지 화학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국내산 닭고기와 돼지고기로 만들었다.

또 유전자조작(GMO)을 하지 않은 콩으로 만든 기름으로 튀겼고, 빵도 각종 화학첨가물을 쓰지 않고 국내산 채소를 넣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가격은 5개 포장(개당 75g)이 6200원.

‘베어풋 시리즈’ 내놔

헤드는 기능성 신발인 ‘베어풋’ 시리즈를 새로 내놓았다.

이 제품은 맨발로 걷는 느낌을 주도록 앞·뒷굽을 완만하게 설계해 발의 중간 부분부터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걸음걸이가 자연스러워지고 몸무게도 잘 분산돼 발목과 허리에 무리가 덜 가게 한다는 것이다.

또 밑창에 13개의 원형 셀을 넣어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했고, 무게도 240mm 기준 210g 밑으로 가볍다.

웹빙·러닝·워킹·트레일 등 네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가격은 9만 9000원.

공기제균기 살균효과

LG전자는 독자 ‘나노 플라즈마 이온’(NPI, Nano Plasma Ion) 기술을 적용해 실내 공기의 유해물질을 없애주는 공기제균기 ‘바이러스 프로’를 출시한다.

대장균, 녹농균,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폐렴균, 홍역독감균 등을 99% 이상 제거해 한국건강제시협연구원 등에서 살균력을 입증받았고, 두통을 유발하는 오존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담배 냄새 제거 등 탈취 기능도 겸비했다. 움직이는 무드 조명 및 동작 상황을 표시하고 은은한 필 화이트 컬러와 터치 버튼 방식 디자인으로 세련미를 더했다. 가격은 15만9000원.

CBS Multimedia Group



Beyond CBS!

방송, 그 이상의 멀티미디어 CBS*

희망의 메시지와 건강한 여론이
CBS 멀티미디어 세상에 있습니다.